

제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분석 (2020.1.20.부터 2022.4.24.까지)

안선희, 장진화, 박신영, 양성찬, 류보영, 신은정, 김나영, 이현주, 김동휘, 유명수, 이종걸, 김태영, 강애리, 김서현, 김성순, 권동혁*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 정보분석팀

ABSTRACT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보고 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 및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지정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발생 현황 및 특성을 유행 시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기간 동안(2020.1.20.-2022.4.24.) 누적 확진자는 해외유입 확진자(31,828명)를 포함한 16,929,564명(인구 10만명 당 누적발생률 32,784.6명)이었으며, 사망자는 23,045명(치명률 0.14%)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9,084,96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3.8%가 발생하였으며, 비수도권은 7,812,775명(46.2%)이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4,117,327명(24.3%), 19-59세 9,812,940명(58.0%), 60세 이상 2,999,297명(17.7%)이었다. 정부는 백신, 치료제 등 약물적 중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통해 유행을 억제하여 왔으나 오미크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일일 최대 621,177명이 보고되는 등 유행 정점을 맞았다. 이후 높은 예방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5일 제1급에서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단계를 조정하였다. 향후 제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면역력 감소에 의한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Key word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률; 치명률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2022년 4

월 24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1]. 2022년 전 세계의 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다. 미국은 확진자

Received June 13, 2022 Revised June 17, 2022 Accepted June 20, 2022

*Corresponding author: 권동혁, Tel: +82-43-719-7730, E-mail: vethyok@korea.kr

Copyright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DCA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보고 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제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16,929,564명(인구 10만명당 32,784.6명), 위중증환자는 22,137명, 사망자 23,045명, 치명률은 0.14%이었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추이, 유행 기수별 특징을 확인하였다.

③ 시사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면역력 감소에 의한 재유행, 더 나아가 새로운 신종 병원체 출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2년 2월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및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확진자 및 사망자 정점 도달 이후, 방역패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모두 해제하였다. 뉴질랜드는 2022년 4월 적색 경보단계를 황색 단계로 완화하였으며 실내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규정을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 이후 국가별 각기 다른 배경 및 근거에 따라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2].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해외유입, 중국 우한시)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였으며, 2022년 4월 25일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났고, 높은 예방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형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1급에서 제2급으로 단계를 조정하였다.

방 법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기간 동안(2020년 1월 20일-2022년 4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유행시기 별 특성¹⁾을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포함)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및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다.

결 과

1.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기간('20.1.20.-'22.4.24.)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 4월 24일까지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 기간 동안 총 16,929,564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민의 약 32.8%(인구 10만명당 32,784.6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평균 20,471.1명이었으며 최소 1명, 최대 621,177명이 발생하였다.

여자가 8,961,439명(52.9%)으로 남자 7,968,125명(47.1%)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9-59세 9,812,940명(58.0%), 18세 이하 4,117,327명(24.3%), 60세 이상 2,999,297명(17.7%) 순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6,512,915명(97.5%), 외국인은 416,649명(2.5%)이었고, 국내발생 16,897,736명(99.8%), 해외유입 31,828명(0.2%)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9,084,961명 (53.8%), 비수도권은 7,812,775명(46.2%)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4,641,202명(27.5%), 서울 3,427,693명(20.3%), 부산 1,037,050명

1) '22.4.24. 신고된 확진자는 '22.4.25. 집계·보도되어 코로나19 Data Base 기준 '20.1.20.-'22.4.25. 자료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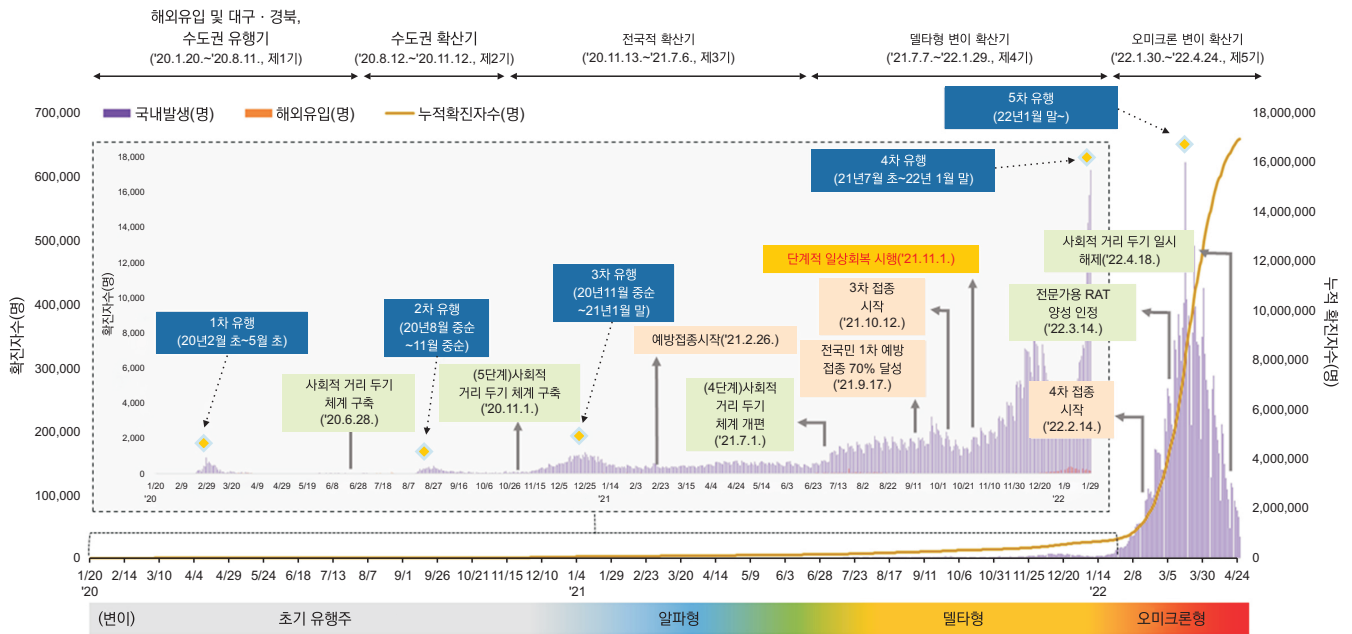


그림 1.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기간 동안 코로나19 발생 현황('20.1.20.-'22.4.24.; DB '20.1.20.-'22.4.25.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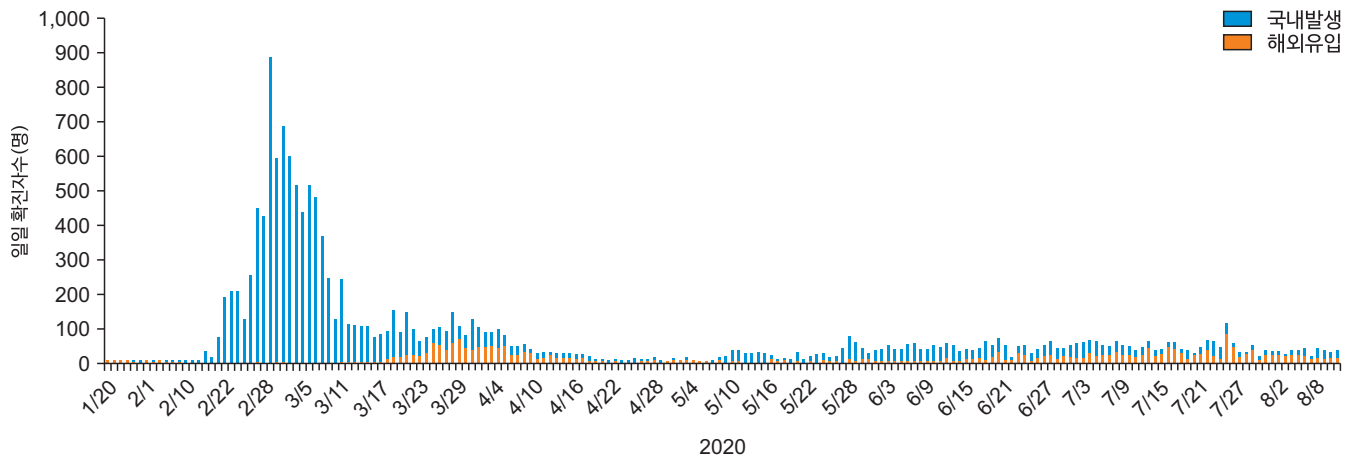


그림 2.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 수도권 유행기('20.1.20.-8.1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6.1%), 인천 1,016,066명(6.0%)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중증환자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중증환자(코로나19 환자의 격리기간 중 고유량 산소요법, 비침습인공호흡기,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 지속적신대체요법 중 1개 이상 적용한 환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사후확진 포함)로 신고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중증 환자는 22,137명, 사망자는 23,045명이 확인되었으며 누적 치명률(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0.14%이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한 이후 유행 상황과 방역 대응 역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조정·개편하여 운영하였다.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17일 전 국민 1차 예방접종률 70%를 달성하였다.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이후 2022년 2월 7일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2022년 3월 14일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RAT,

Rapid Antigen Test)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였으며,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등 일상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2022년 4월 25일 코로나19를 제1급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조정하였다.

을 고려하여 유행 시기를 주요 특징에 따라 다섯 개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행 시기별 확진자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특성

표 1. 유행 시기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주요 발생 특성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지정기간	해외유입 및 대구· 경북·수도권 유행기	수도권 확산기	전국적 확산기	델타형 변이 확산기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
기간	(‘20.1.20.- ‘22.4.24.)	(‘20.1.20.- ‘20.8.11.)	(‘20.8.12.- ‘20.11.12..)	(‘20.11.13.- ‘21.7.6.)	(‘21.7.7.- ‘22.1.29)	(‘22.1.30.- ‘22.4.24)
발생 기수	전 기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계	16,929,564명	14,660명	13,280명	133,600명	649,534명	16,118,490명
성별 남	7,968,125명(47.1%)	6,688명(45.6%)	6,394명(48.1%)	68,448명(51.2%)	337,749명(52.0%)	7,548,846명(46.8%)
여	8,961,439명(52.9%)	7,972명(54.4%)	6,886명(51.9%)	65,152명(48.8%)	311,785명(48.0%)	8,569,644명(53.2%)
연령 18세 이하	4,117,327명(24.3%)	791명(5.4%)	1,082명(8.1%)	15,412명(11.5%)	134,353명(20.7%)	3,965,689명(24.6%)
19~59세	9,812,940명(58.0%)	10,380명(70.8%)	7,809명(58.8%)	86,415명(64.7%)	387,351명(59.6%)	9,320,985명(57.8%)
60세 이상	2,999,297명(17.7%)	3,489명(23.8%)	4,389명(33.0%)	31,773명(23.8%)	127,830명(19.7%)	2,831,816명(17.6%)
국적 내국인	16,512,915명(97.5%)	13,576명(92.6%)	12,129명(91.3%)	123,278명(92.3%)	589,023명(90.7%)	15,774,909명(97.9%)
외국인	416,649명(2.5%)	1,084명(7.4%)	1,151명(8.7%)	10,322명(7.7%)	60,511명(9.3%)	343,581(2.1%)
일평균 확진자 수	20,471.1명	71.5명	142.8명	566.1명	3,137.8명	187,424.3명
(최소~최대)	(1명~621,177명)	(1명~909명)	(38명~441명)	(191명~1,240명)	(1,049명~17,509명)	(17,075명~21,177명)
위중증 환자 수	22,137명(26.8명)	375명(1.8명)	575명(6.1명)	3,188명(13.5명)	9,130명(44.1명)	8,869명(103.1명)
(일평균)						
사망자 수(치명률)	23,045명(0.14%)	308명(2.10%)	221명(1.66%)	1,556명(1.16%)	5,061명(0.78%)	15,899명(0.10%)
국내 발생	16,897,736명(99.8%)	12,086명(82.4%)	11,820명(89.0%)	127,358명(95.3%)	634,973명(97.8%)	16,111,499명(99.9%)
수도권	9,084,961명(53.8%)	2,844명(23.5%)	9,166명(77.5%)	88,698명(69.6%)	455,184명(71.7%)	8,529,069명(52.9%)
서울	3,427,693명(20.3%)	1,335명(11.0%)	4,679명(39.6%)	44,642명(35.1%)	213,816명(33.7%)	3,163,221명(19.6%)
인천	1,016,066명(6.0%)	308명(2.5%)	648명(5.5%)	5,607명(4.4%)	41,372명(6.5%)	968,131명(6.0%)
경기	4,641,202명(27.5%)	1,201명(9.9%)	3,839명(32.5%)	38,449명(30.2%)	199,996명(31.5%)	4,397,717명(27.3%)
비수도권	7,812,775명(46.2%)	9,242명(76.5%)	2,654명(22.5%)	38,660명(30.4%)	179,789명(28.3%)	7,582,430명(47.1%)
부산	1,037,050명(6.1%)	145명(1.2%)	401명(3.4%)	5,566명(4.4%)	26,025명(4.1%)	1,004,913명(6.2%)
대구	692,376명(4.1%)	6,881명(56.9%)	228명(1.9%)	3,312명(2.6%)	20,212명(3.2%)	661,743명(4.1%)
광주	491,247명(2.9%)	182명(1.5%)	282명(2.4%)	2,331명(1.8%)	10,854명(1.7%)	477,598명(3.0%)
대전	469,966명(2.8%)	147명(1.2%)	265명(2.2%)	2,312명(1.8%)	12,832명(2.0%)	454,410명(2.8%)
울산	347,432명(2.1%)	34명 (0.3%)	86명(0.7%)	2,610명(2.0%)	5,617명(0.9%)	339,085명(2.1%)
세종	128,155명(0.8%)	45명(0.4%)	19명(0.2%)	482명(0.4%)	2,200명(0.3%)	125,409명(0.8%)
강원	468,241명(2.8%)	53명(0.4%)	249명(2.1%)	3,186명(2.5%)	11,623명(1.8%)	453,130명(2.8%)
충북	509,984명(3.0%)	62명(0.5%)	94명(0.8%)	3,031명(2.4%)	11,044명(1.7%)	495,753명(3.1%)
충남	658,258명(3.9%)	162명(1.3%)	436명(3.7%)	3,051명(2.4%)	19,257명(3.0%)	635,352명(3.9%)
전북	546,270명(3.2%)	18명 (0.1%)	105명(0.9%)	2,133명(1.7%)	11,346명(1.8%)	532,668명(3.3%)
전남	541,134명(3.2%)	18명(0.1%)	142명(1.2%)	1,411명(1.1%)	8,554명(1.3%)	531,009명(3.3%)
경북	692,979명(4.1%)	1,374명(11.4%)	146명(1.2%)	3,223명(2.5%)	15,211명(2.4%)	673,025명(4.2%)
경남	1,011,827명(6.0%)	110명(0.9%)	171명(1.4%)	4,826명(3.8%)	21,131명(3.3%)	985,589명(6.1%)
제주	217,856명(1.3%)	11명(0.1%)	30명(0.3%)	1,186명(0.9%)	3,883명(0.6%)	212,746명(1.3%)
해외유입	31,828명(0.2%)	2,574명(17.6%)	1,460명(11.0%)	6,242명(4.7%)	14,561명(2.2%)	6,991(<0.1%)

표 1. Continued

주요 발생 특성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지정기간	해외유입 및 대구· 경북·수도권 유행기	수도권 확산기	전국적 확산기	델타형 변이 확산기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
기간	(‘20.1.20.- ‘22.4.24.)	(‘20.1.20.- ‘20.8.11.)	(‘20.8.12.- ‘20.11.12.)	(‘20.11.13.- ‘21.7.6.)	(‘21.7.7.- ‘22.1.29)	(‘22.1.30.- ‘22.4.24)
발생 기수	전 기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주요 유행 특성	•대구·경북, 수도권 중심 관련 (제1기-제3기) → 전 지역사회 광범위한 발생(제4기)으로 양상 변화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제5기) 및 방역체계 패러다임 전환	•‘20.1.20일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후 특정 종교 관련 대구·경북 유행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전국적 집단발생	•수도권 종교시설, 대규모 도심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소규모-중간규모 집단 다수 발생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 확산 •교정시설,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집단 다수 발생 •예방접종 시작	•수도권역 중심의 확진자 발생 지속 •예방접종 상황에 따른 확진자 연령대 변화 •델타형변이 우세화→오미크론 변이 출현 및 확산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경증(輕症) 확진자 급증 •총 누적확진자의 95.2%가 5기에 집중 발생 •예방접종률 낮고 접촉빈도 높은 영유아·학령기에서 높은 발생 •자기기입식 전자역학 조사서(‘22.2.7) 도입

*DB 2020.1.20.-2022.4.25.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모니터링 2022.5.8. 0시 기준

2.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 수도권 유행기(제1기, ‘20.1.20.-‘20.8.11.) 특성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 수도권 유행기인 제1기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 지역의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에 의한 유행 시기로 2020년 1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로 구분하였으며, 종교시설·유흥시설·물류센터 관련 주요 집단이 발생한 시기이다.

제1기 확진자는 총 14,660명이었고, 일평균 확진자 수는 71.5명이었으며 최소 1명, 최대 90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6,688명(45.6%), 여자 7,972명(54.4%)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791명(5.4%), 19-59세 10,380명(70.8%), 60세 이상 3,489명(23.8%)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3,576명(92.6%), 외국인인 1,084명(7.4%)이었으며, 국내발생은 12,086명(82.4%), 해외유입은 2,574명(17.6%)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2,844명(23.5%), 비수도권은 9,242명(76.5%)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6,881명(56.9%), 경북 1,374명(11.4%), 서울 1,335명(11.0%), 경기 1,201명

(9.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위중증 환자는 375명, 사망자는 308명으로 치명률은 2.10%로 나타났다.

3. 수도권 확산기(제2기, ‘20.8.12.-‘20.11.12.) 유행 특성

수도권 확산기인 제2기는 수도권 종교시설 및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되어 다중이용시설, 집합사업설명회, 가족지인모임을 통한 유행이 주로 발생한 시기로 2020년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구분하였다.

제2기 확진자는 총 13,280명으로 일평균 221명이었으며, 최소 38명, 최대 441명이었다. 남자 6,394명(48.1%), 여자 6,886명(51.9%)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082명(8.1%), 19-59세 7,809명(58.8%), 60세 이상 4,389명(33.0%)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2,129명(91.3%), 외국인은 1,151명(8.7%)이었으며, 국내발생은 11,820명(89.0%), 해외유입은 1,460명(11.0%)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9,166명(77.5%), 비수도권은 2,654명(22.5%)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4,679명(39.6%), 경기 3,839명(32.5%), 인

천 648명(5.5%), 충남 436명(3.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위중증 환자는 575명, 사망자는 221명이 발생하였고, 치명률 1.66%이었다.

4. 전국적 확산기(제3기, '20.11.13.-'21.7.6.) 유행 특성

전국적 확산기인 제3기는 알파형, 입실론형, 델타형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시기로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로 구분하였으며 교정시설, 병원·요양시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된 시기이다.

제3기 확진자는 총 133,600명이었고, 일평균 확진자 수는 566.1명이었으며 최소 191명, 최대 1,24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68,448명(51.2%), 여자 65,152명(48.8%)이었고,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5,412명(11.5%), 19-59세 86,415명(64.7%), 60세 이상 31,773명(23.8%)이 발생하였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23,278명(92.3%), 외국인은 10,322명(7.7%)이었으며, 국내발생은 127,358명(95.3%), 해외유입은 6,242명(4.7%)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88,698명(69.6%), 비수도권은 38,660명(30.4%)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44,642명(35.1%), 경기 38,449명(30.2%), 인천 5,607명(4.4%), 부산 5,566명(4.4%) 순이었다. 위중증 환자는 3,188명, 사망자는 1,556명으로 치명률은 1.16%이었다.

5. 델타형 변이 확산기(제4기, '21.7.7.-'22.1.29.) 유행 특성

델타형 변이 확산기인 제4기는 델타형 바이러스의 우세화 이후 병원·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양한 시설에서 중·소규모의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유행한 기간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1월 29일까지로 구분하였다. 제4기 동안 1차 예방접종률 70%를 달성하였으며(2021.9.17.) 60세 이상 연령군의 발생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예방접종 미접종군인 18세 이하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관련 집

단에서 유행하였다.

제4기는 총 649,5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일평균 확진자는 3,137.8명으로 최소 1,049명, 최대 17,509명이었다. 남자 337,749명(52.0%), 여자 311,785명(48.0%)이었고,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34,353명(20.7%), 19-59세 387,351명(59.6%), 60세 이상 127,830명(19.7%)이었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589,023명(90.7%), 외국인은 60,511명(9.3%)이었으며, 국내발생 634,973명(97.8%), 해외유입 4,561명(2.2%)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455,184명(71.7%), 비수도권은 179,789명(28.3%)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213,816명(33.7%), 경기 199,996명(31.5%), 인천 41,372명(6.5%), 부산 26,025명(4.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위중증 환자는 9,130명, 사망자는 5,061명으로 치명률 0.78% 이었다.

6.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제5기, '22.1.30.-'22.4.24.) 유행 특성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인 제5기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2배 높다고 알려진[3] 오미크론형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화(22년 1월 3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이며 2022년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하기 전인 2022년 4월 24일까지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초반에 비하여 높은 백신 접종률, 경구 치료제 보급 등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오미크론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검사·추적·치료(3T; Test, Tracing, Treatment)의 방역 전략에서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의 집중관리 및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게 되었다[4].

제5기는 총 16,118,4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누적 확진자의 95.2%에 해당한다. 일평균 확진자는 187,424.3명으로 최소 17,075명, 최대 621,177명이 발생하였다. 남자 7,548,846명(46.8%), 여자 8,569,644명(53.2%)

이었고,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3,965,689명(24.6%), 19-59세 9,320,985명(57.8%), 60세 이상 2,831,816명(17.6%)이 발생하였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15,774,909명(97.9%), 외국인은 343,581명(2.1%)이었고, 국내발생은 16,111,499명(99.9%), 해외유입은 6,991명(<0.1%)이었다. 국내발생 중 수도권은 8,529,069명(52.9%), 비수도권은 7,582,430명(47.1%)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97,717명(27.3%), 서울 3,163,221명(19.6%), 부산 1,004,913명(6.2%), 경남 985,589명(6.1%) 순이었다. 제5기 위증증 환자는 8,869명, 사망자는 15,899명으로 치명률은 0.10% 이었다.

결론

우리 정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19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16,929,564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전 국민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471.1명이었고 최소확진자 수는 1명, 최대 확진자 수는 621,177명이었다. 제1기, 제2기는 여자(54.4%, 51.9%) 제3기, 제4기는 남자(51.2%, 52.0%), 제5기는 다시 여자(53.2%)의 발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제1기에서 제5기까지 18세 이하의 발생 비중이 지속 증가했으며 (5.4% → 8.1% → 11.5% → 20.7% → 24.6%), 60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23.8% → 33.0% → 23.8% → 19.7% → 17.6%). 제1기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17.6%(2,547명)을 차지하였으나, 제5기로 갈수록 발생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제2기 11.0%, 제3기 4.7%, 제4기 2.2%, 제5기 0.1% 미만). 국내발생의 지역별 확진자는 제1기 대구·경북(56.9%, 11.4%)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76.5%를 차지하였으나, 제2기는 서울도심집회 관련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77.5%가 발생하였다. 제3기-제4기는 수도권 약 70%, 비수도권 약 30% 발생을 유지하였으며 제5기는 오미크론형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국적 확진자가 고루 발생하여 수도권 비중은 52.9%, 비수도권은 47.1%로 제1기-제4기에 비하여 비교적 균등한 발생 비중을 보였다.

코로나19는 최초 출현시 증증도를 알 수 없었으므로 질병의 증증도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1급 법정감염병 기간 동안 전체 치명률은 0.14%였으며, 제1기 2.10%로 가장 높은 치명률은 보인 후 제3기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오미크론형 변이가 국내 확인된 이후 지역사회에 점차 우세화되면서 치명률은 급감하여 제5기에는 0.10%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2020년 1월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환자 관리로 이어지는 대응을 유지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억제하고 증증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등 약물적 중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중재 정책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상황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당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다. 최근 오미크론형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높은 전파력으로 지역사회의 대규모 유행을 일으켰으나, 그간의 중재 정책 효과,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후 증증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병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개편된 방역체계를 발판으로 시작된 것처럼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향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또는 면역력 감소에 의한 재유행, 더 나아가 새로운 신종 병원체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Declarations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GDH. Data curation: JHK. Funding acquisition: GDH. Investigation: JHK, SSL. Methodology: AGK. Project administration: GDH. Supervision: GDH. Writing—original draft: JHK, SSL. Writing—review & editing: GDH, AGK.

References

1. 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89, published 27 April 2022) [Internet].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handle/10665/353609>.
2.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COVID-19), Republic of. [Internet]. Available from: <http://ncov.mohw.go.kr>.
3.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OVID-19 for healthcare provider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ncv.kdca.go.kr/hcp/page.do>.
4.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press release (2022. 4. 15.) Social distancing mandate lifted after 2 years and 1 month, adherence to daily infection control practices like hand washing, ventilation, and disinfection becomes more important (periodic briefs). Available from: https://www.kdca.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5035573164900.pdf&rs=/upload_comm/docu/0015.